

## 해방전 우리 인민들에 대한 미국선교사들의 야수적인 살인만행과 그 범죄적성격

김철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선교사들은 우리 나라에서 〈인도주의〉간판을 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야수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그전에 순안에 있던 미국선교사놈은 조선의 어린이가 과수밭에서 떨어진 사과를 한알 주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2권 32~33페이지)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첫 시기에 벌써 종교를 대조선정책실현의 중요수단으로 삼고 19세기말부터 그리스도교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키였다.

미국선교사들은 각지에 레배당과 병원, 학교를 세우고 《자선》과 《박애》의 미명밑에 우리 인민들속에 노예적굴종사상과 숭미사대의식을 고취하고 친미주구들을 길러내는 등 대조선침략의 기반을 닦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수많은 살해하였다.

《의사》, 《교원》, 《하느님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사랑》과 《박애》를 부르짖던 미국선교사들은 우리 나라의 각지에서 극악한 살인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우선 《자선》의 간판을 들고 경영하던 《병원》들에서 《치료》를 구실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살해하였다.

우리 나라에 기여든 후 미국공사관소속의 《의사》로 있으면서 포교활동을 벌릴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던 알렌이 갑신정변이후 수구파우두머리 민영익을 치료해준것을 계기로 서울 제동에 《광혜원》을 차려놓는데 이어 언더우드, 스크랜튼 등 많은 선교사들이 각지에 병원들을 세웠다.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이러한 《병원》들은 레외없이 사람들속에 그리스도교를 퍼뜨리기 위한 은폐된 형태의 전도기관이었으며 교회를 대신하는 종교침략의 거점이었다. 이러한 《병원》들에서 미국선교사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막뒤에서 몹서리치는 살인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개성 《남성병원》의 미국선교사 앤더슨은 선죽동에 사는 한 처녀가 변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난것을 보고 그를 입원시킨다고 하면서 글을 모르는 처녀의 어머니에게 그 무슨 《서약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였다. 그것은 《치료》중에 죽어도 병원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과 만약 죽는 경우에도 시체를 찾을수 없다고 씌여진 살인서약이었다. 그 처녀를 전신마취시켜 수술대위에 올려놓은 앤더슨은 녀편네와 인체해부실습중인 풋내기 의사들로 하여금 처녀의 배를 가르고 몇시간동안이나 인체해부실습을 하도록 하여 처녀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무슨 《암》이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하면서 저들의 죄행이 드러날가봐 시체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이발이 아파서 《남성병원》에 갔다가 서서히 목

숨을 앗아가는 《지속성독주사약》의 실험대상이 되어 9일만에 죽었으며 《남성병원》의 한 미국선교사놈은 소아마비에 걸린 조선소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갖은 고통을 주다가 죽여버렸다.

이와 같은 만행은 다리에 생긴 상처를 치료받으러갔다가 다리의 살점과 힘줄을 뜯기우고 영영 불구가 된 개성시 북산동에 사는 김종우로인을 놓고도 알수 있다. 김종우로인은 이에 대하여 《남성병원》원장의 사무실 밑에 있는 지하실의 특수실험실에서는 매일과 같이 조선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기때문에 병원사체실에 날마다 생주검이 쌓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개성인민들은 《남성병원》의 미국《의사》들의 살인만행에 대하여 항거하여나섰으나 그놈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와 결탁되어있었기때문에 어찌할수가 없었다.

운산금광에 《자혜병원》을 차려놓고있던 미국선교사는 의학박사론문을 완성하기 위한 생체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광산로동자를 입원시키고 그의 성한 팔다리를 마구 잘라 장시간 《실험》을 진행하고 운명직전에 있는 로동자에게 사람이 죽는것은 《하느님의 품》으로 가는 《행복》한것이라고 기도를 하면서 독약을 먹여 학살하였다.

채령 《제중병원》의 미국선교사들은 비밀지하실과 《병막》을 따로 만들어놓고 언제든 지 사람을 죽일수 있는 독약과 돈벌이를 할수 있는 가짜약을 제조하였으며 사람들을 전염병이라는 구실 밑에 격리시키고 피를 뽑아내고 병어리, 귀머거리, 소경 등 불구로 만드는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으며 평북도 선천 《미동병원》의 미국선교사 샤록스라는 놈은 등이 굽은 조선어린이의 허리를 펴준다고 하면서 두꺼운 철판우에 눕히고 결박하여 등뼈를 마구 꺾어죽이였다.

미국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은 조선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현대문명을 선사하기 위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인간도살장이였다.

미국선교사들은 또한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조선녀성들과 인민들을 릉육하고 야만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는 《선교정책》에서 《어머니들이 후손들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과 처녀들을 교육시키는데 특히 힘쓸것》을 지적함으로써 조선녀성들을 그리스도교신자로 만드는데 특별한 힘을 기울일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그리스도교신자로 만들뿐아니라 녀성들로 하여금 천진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예적굴종사상을 주입시키도록 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이로부터 미국선교사들은 녀성교직자양성을 위한 신학교들과 수녀원들, 각종 교회들을 통하여 조선녀성들에게 그리스도교와 숭미사대주의를 주입시키는 한편 그 막뒤에서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릉육, 학살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숨막히는 가난속에서 《래세에 대한 위안》이라도 가져보려는 터무니 없는 환상을 가지고 교회당으로 찾아오는 녀성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강압유인하여 릉육하였으며 순순히 응하지 않고 항거해나서는 녀인들은 서슴없이 정신병자로 만들거나 지하실에 만들어놓은 수직굴에서 즉시 처리하는 악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자강도 강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장로회 한 선교사는 교회당 모퉁이에 배고파 쓰러져있는 모녀를 발견하고 《동정》하는척 하면서 수년간 자기 집에서 부려먹었다. 그 딸이 성장하게 되자 선교사놈은 어느날 그를 지하실에 끌고들어가 강간을 하고 이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하여 실신한 처녀를 독주사로 살해하였다. 처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해나서자 그의 어머니까지 독주사로 죽이는 악착한짓을 감행하였다.

미국감리교회 선교단체에서 1903년에 조선에 침투시킨 한 선교사는 자기 집을 수리해주는 목수청년의 처를 탐내오다가 어느날 2층에서 일하는 청년을 떨어뜨려 죽이고는 그의 처를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몰래 죽여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조선여성들은 저들의 음탕하고 추악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희롱대상이었다.

미국선교사들은 우리 여성들의 정조를 유린하였을뿐아니라 각지에 레배당을 세우고 겉으로는 《자선》과 《박애》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갇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925년 여름 미국 안식교회에서 운영하는 《순안병원》의 원장으로 있던 미국선교사 페스머(조선이름 허시모)는 과수원을 돌아보다가 12살난 김명섭어린이가 떨어진 사과 한알을 줏는것을 발견하고 데리고있던 사냥개를 부추겨 어린 소년을 마구 물어뜯게 하였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 청강수를 가져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린이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크게 새기고는 살이 잘 타도록 해벌에 한시간동안이나 말리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장로회 선교단체에서 조선에 파견되어 평양숭실학교 교장을 하던 미국선교사는 자기 집앞의 사과나무밭옆으로 지나가던 한 어린이가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나무방망이로 머리를 까서 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900년대초 개성시 양촌부근의 딸기밭에서는 미국선교사가 딸기를 따먹는 세명의 어린이들에게 사냥개를 풀어 물어뜯게 함으로써 사냥개에 물린 여섯살난 한 어린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끝내 미친개병으로 죽게 하였으며 미국장로회에서 파견한 한 미국선교사는 재령에서 꿩사냥을 하다가 밭에서 일하는 조선농민을 싸잡히고 같이 갔던 조선장로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뇌까리었다.

이와 함께 미국선교사들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선교활동의 거점인 교회당을 지으면서 비밀에 속하는 건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이 끝나는 차례로 동원된 사람들을 그 누구도 모르게 굴속에 넣어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저들의 활동에 지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리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의 극악한 살인만행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나 국권을 상실당한 우리 인민은 어디 가서 항변할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든 첫날부터 불쌍한 조선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사도》로 행세한것은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선교사들의 우리 인민에 대한 살인만행은 그 성격에 있어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그것은 우선 극도의 인간멸시사상, 인간증오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감행된 인간말살행위라는것이다.

인디안의 피바다우에 나라를 세운 첫날부터 다른 나라와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살륙으로 살찌온 미국은 인간멸시사상, 인간증오사상을 체질화한 승냥이의 무리들이다.

미국선교사들이 우리 여성들과 인민들을 릉육, 학살한것은 그 무슨 동기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죄를 짓거나 피해를 주어서도 결코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극도의 멸시와 증오가 골수에 사무친 두발가진 승냥이들에게는 그 어떤 윤리나 리성이 통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선량하고 순진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살인만행들은 하나하나가 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특대형사건들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십자가를 앞에 들고 《자선》과 《박애》의 미명밑에 감행된 가장 교활한 살인행위라는것이다.

미국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에 십자가를 내걸고 《사랑》과 《자선》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주사 한대를 놓고도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것을 강요하였고 금계랍봉지를 나누어주면서도 《신의 은총》에 대하여 떠들었다.

그러기에 당시 일본침략자들까지도 《미국선교사들의 전도방법이란 참으로 교묘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자들은 《조선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겸손과 친절을 주지로 하여 길가의 사람에게까지 〈나의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면서 ... 친교를 맺고 빈자에게는 주고 병자는 고쳐 오로지 그리스도교의 박애주의선전에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척후병들인 미국선교사들의 침략적이며 야만적인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였으며 그들이 내건 십자가는 그야말로 조선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죽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였다.

미국선교사들은 얼굴에는 《하느님의 천사》로서의 웃음을 짓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입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외워대는 두발가진 승냥이들이였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뜨우고 목숨을 꺼리낌없이 빼앗아간 미국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오늘 《인권》에 대하여 요란히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철천지원췌 미제를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것이다.